

# 2010년 노동시장 동향과 2011년 전망

동향분석실\*

## I. 2010년 노동시장 개관

### 1. 민간 주도의 일자리 회복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악화되었던 2009년 고용사정은 2010년 이후 개선된 모습으로 전환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함에 따라 일자리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2010년(1~11월) 고용창출규모는 예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연초에는 2009년의 경기침체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주춤했으나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사정이 빠르게 개선되어 2010년(1~11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11천 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그림 1 참조).

2010년 경제성장률이 6.1%(잠정전망치)로 높은 데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은 연초에 고용증가율이 낮았고, 2009년 정부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 정책에 기인하여 상대적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크지 않은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9년 정부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하여 2010년 공공부문의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표 2 참조) 취업자수 규모 자체는 2008년을 상회하고 있어 2011년에는 예년의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기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구조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계층의 회복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고용창출력 확대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06	2007	2008	2009	2009 (1~11월)	2010 (1~11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38,762 (1.2)	39,170 (1.1)	39,598 (1.1)	40,092 (1.2)	40,072 (1.2)	40,570 (1.2)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3,978 (1.0)	24,216 (1.0)	24,347 (0.5)	24,394 (0.2)	24,424 (0.2)	24,768 (1.4)
	취업자 (증가율) (증감수)	23,151 (1.3) (295)	23,433 (1.2) (282)	23,577 (0.6) (145)	23,506 (-0.3) (-72)	23,531 (-0.3) (-77)	23,842 (1.3) (311)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여성)	61.9 (74.1) (50.3)	61.8 (74.0) (50.2)	61.5 (73.5) (50.0)	60.8 (73.1) (49.2)	61.0 (73.1) (49.3)	61.0 (73.1) (49.5)
	고용률 (남성) (여성)	59.7 (71.3) (48.8)	59.8 (71.3) (48.9)	59.5 (70.9) (48.7)	58.6 (70.1) (47.7)	58.7 (70.1) (47.8)	58.8 (70.1) (47.9)
	실업자 실업률 (남성) (여성)	827 3.5 (3.8) (2.9)	783 3.2 (3.7) (2.6)	769 3.2 (3.6) (2.6)	889 3.6 (4.1) (3.0)	894 3.7 (4.1) (3.0)	926 3.7 (4.0) (3.3)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4,784 (1.6)	14,954 (1.2)	15,251 (2.0)	15,698 (2.9)	15,647 (2.9)	15,803 (1.0)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여성)	66.2 (77.8) (54.8)	66.2 (77.6) (54.8)	66.0 (77.3) (54.7)	65.4 (76.9) (53.9)	65.5 (76.9) (54.0)	65.9 (77.1) (54.6)
	고용률 (남성) (여성)	63.8 (74.7) (53.1)	63.9 (74.6) (53.2)	63.8 (74.4) (53.2)	62.9 (73.6) (52.2)	63.0 (73.6) (52.3)	63.3 (74.0) (5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2> 부문별 취업자 비중 및 증감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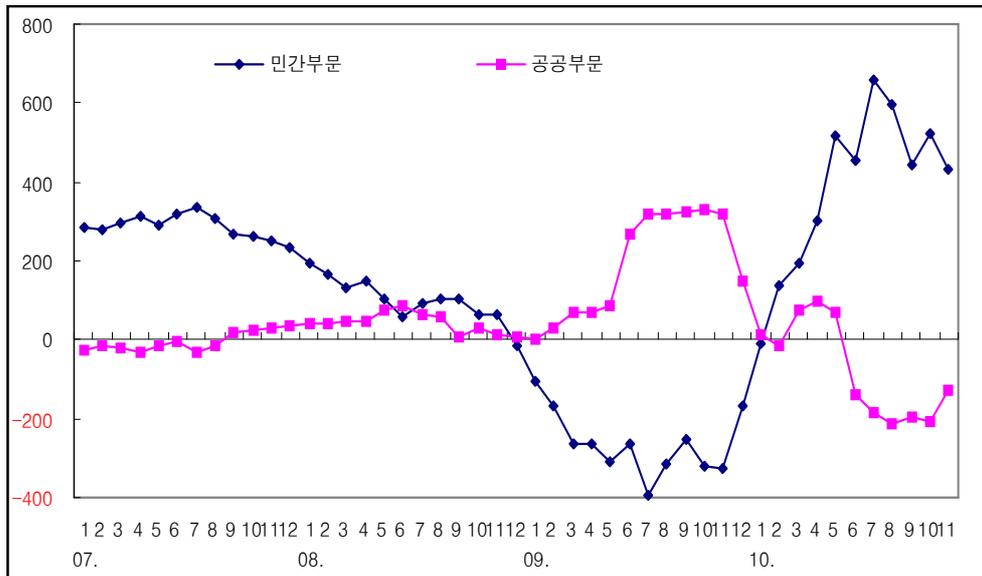
	2007	2008	2009	2007 (1~11월)	2008 (1~11월)	2009 (1~11월)	2010 (1~11월)
취업자	23,433	23,577	23,506	23,449	23,607	23,531	23,842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증감	282	144	-71	283	159	-76	311
민간부문	22,636	22,737	22,474	22,652	22,764	22,492	22,879
비중	(96.6)	(96.4)	(95.6)	(96.2)	(97.0)	(94.7)	(97.5)
증감	287	101	-263	291	112	-272	387
공공부문	797	840	1032	797	843	1,039	963
비중	(3.4)	(3.6)	(4.4)	(3.4)	(3.6)	(4.4)	(4.1)
증감	-5	43	191	-8	47	195	-76

주 : ( )안은 전체 취업자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1] 부문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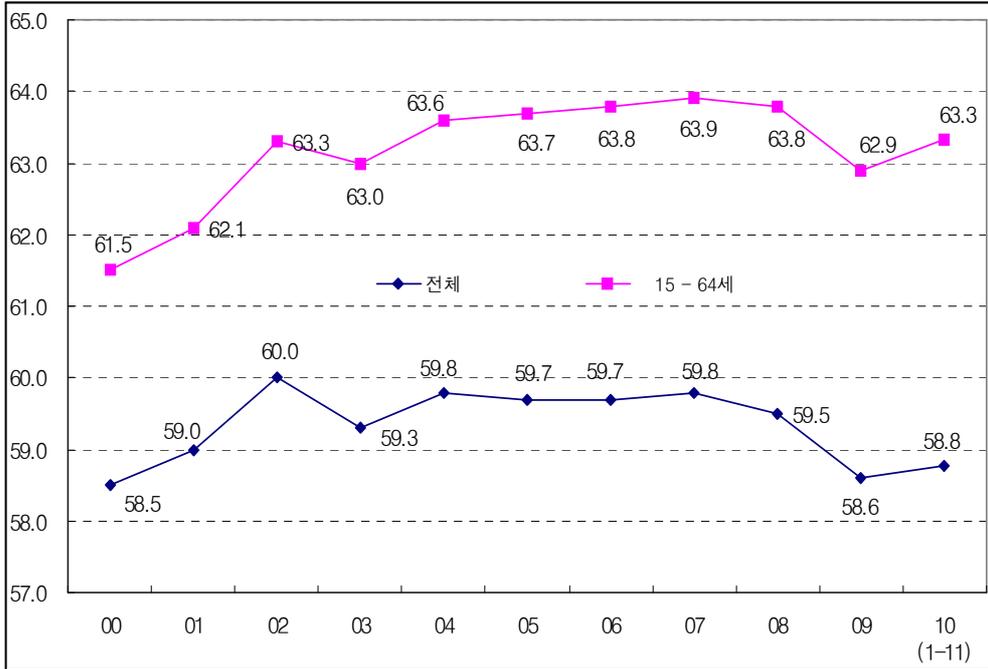
## 2. 고용률 정체 지속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고용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고용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고용률 지표는 2010년(1~11월) 58.8%로 전년동기(58.7%)에 비해 0.1%p 증가했지만, 경기침체기 이전에 비해 1%p 가량 낮은 수준으로 고용률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의 영향을 통제한 15~64세 인구 고용률 역시 2010년(1~11월) 63.3%로 전년동기(63.0%)보다 0.3%p 증가했지만, 경기침체기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

1985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상승추세를 지속하여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가장 높은 수준인 60.9%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률은 2002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장기간 정체된 국면을 이어가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장기간 고용률이 정체 및 감소를 지속하는 근본 원인으로 OECD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여성 고용률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40% 중반을 넘는 수준이던 여성 고용률은 현재까지 여성 생산가능인구의 절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 고용률 제고에 대한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림 2]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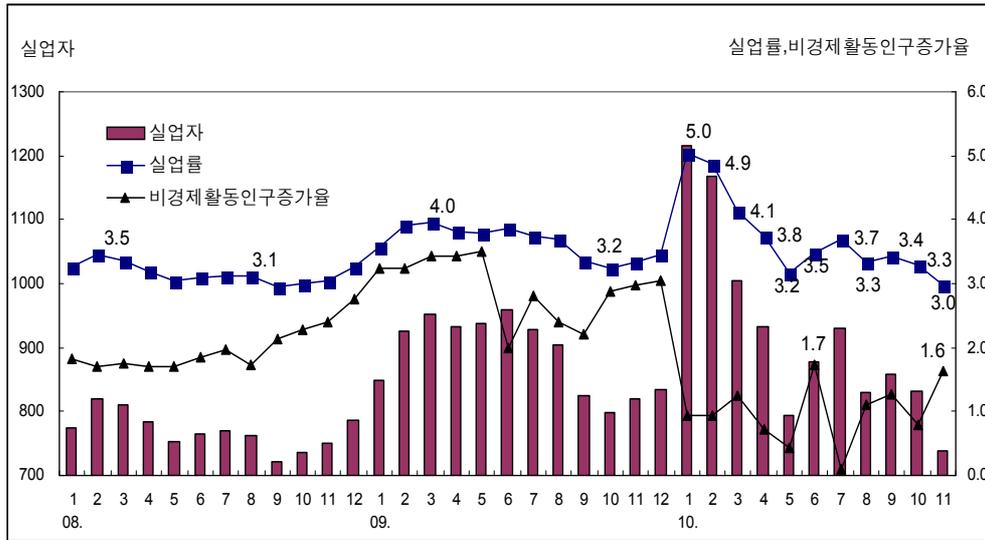
### 3. 구직활동 증가로 비경제활동인구 감소

2010년 들어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2010년(1~11월)에 1.0% 증가하여 예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구직활동의 증가로 실업자수는 2009년 경기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 하반기 들어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점차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2010년(1~11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322천 명이 증가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20.2%를 차지했다. 반면,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상 된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1~11월) 대비 43천 명이 감소했다. 이는 장기간 노동시장 밖에 머물던 계층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이들 중 상당수는 비경제활동과 불안정 고용을 반복하는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3> 비경제활동인구의 전직유무

(단위: 천 명, %)

	규 모				증 감			
	2007 (1~11)	2008 (1~11)	2009 (1~11)	2010 (1~11)	2007 (1~11)	2008 (1~11)	2009 (1~11)	2010 (1~11)
비경제활동인구	14,919(100.0)	15,203(100.0)	15,647(100.0)	15,803(100.0)	166	285	444	155
1년 이상	8,035( 53.9)	8,227( 54.1)	8,440( 53.9)	8,397( 53.1)	120	192	213	-43
1년 미만	2,811( 18.8)	2,703( 17.8)	2,873( 18.4)	3,195( 20.2)	-129	-108	170	322
없었음	4,072( 27.3)	4,273( 28.1)	4,334( 27.7)	4,211( 26.6)	175	201	61	-123

주: ( )안은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II. 2010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 1. 청년층 고용사정 지속적으로 악화

2010년(1~11월) 취업자 증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50대에서 주도(293천 명 증가)하였다. 50대 취업자 증가세는 최근 두드러지는 현상이 아니라 2000년 이

전부터 이어진 장기추세로, 중고령자 인구의 유입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대 청년과 30대 남성의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1~11월) 20대 취업자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67천 명이 감소하였으며, 남성(-36천 명)과 여성(-31천 명) 모두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30대는 2009년(1~11월)에 비해 6천 명 감소에 그쳤지만, 여성은 17천 명 증가한 데 비해 남성이 23천 명 감소했다. 특히 30대 중 여성 30~34세의 증가(54천 명)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30대 남성을 세부 연령으로 나누어 보면 35~39세는 경기침체기 이전에는 취업자가 증가추세를 보이다 금융위기 이후 감소한 반면, 30~3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대 청년층의 고용사정 악화가 30대 초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성별·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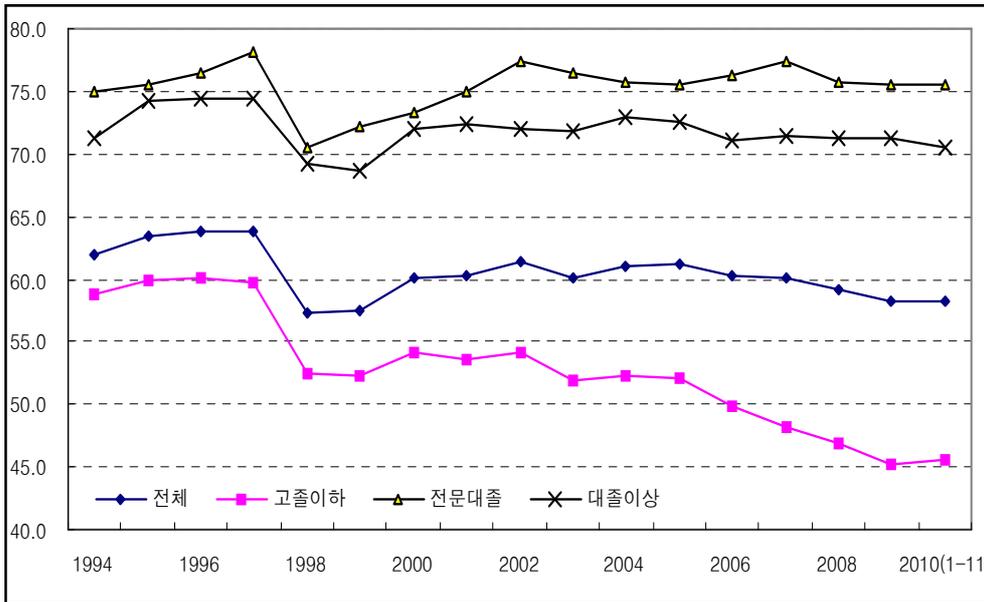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07 (1~11월)	2008 (1~11월)	2009 (1~11월)	2010 (1~11월)
전체	전 체	282	145	-72	283	159	-77	311
	15-19세	1	-21	-12	2	-20	-16	27
	20-29세	-69	-98	-115	-65	-95	-122	-67
	30-39세	-100	-26	-173	-106	-18	-176	-6
	(30-34세)	-119	-39	-69	-123	-37	-73	45
	(35-39세)	19	14	-103	16	18	-103	-51
	40-49세	76	64	-24	74	66	-20	25
	50-59세	258	207	197	257	209	193	293
60세 이상	115	18	54	121	17	64	38	
남성	전 체	163	96	31	162	104	22	176
	15-19세	8	-15	-11	9	-15	-13	9
	20-29세	-37	-52	-42	-35	-51	-47	-36
	30-39세	-64	-3	-67	-65	-1	-66	-23
	(30-34세)	-88	-15	-28	-89	-16	-27	-9
	(35-39세)	25	12	-39	25	15	-39	-14
	40-49세	29	49	-13	24	52	-13	19
	50-59세	156	105	118	154	108	114	168
60세 이상	71	12	46	74	12	48	39	
여성	전 체	120	48	-103	122	54	-99	134
	15-19세	-6	-6	-1	-7	-5	-3	18
	20-29세	-32	-46	-73	-29	-44	-75	-31
	30-39세	-37	-22	-106	-42	-17	-110	17
	(30-34세)	-30	-24	-41	-33	-21	-46	54
	(35-39세)	-6	2	-64	-8	4	-64	-37
	40-49세	48	15	-11	50	14	-7	6
	50-59세	102	102	80	102	101	80	125
60세 이상	45	5	9	47	5	16	-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4] 20대 학력별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0~30대 취업지수 감소는 인구효과가 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인구효과를 배제한 고용률 지표를 보더라도 이들 계층의 고용사정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10년(1~11월)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58.3%로 경기침체기 이전인 2007년과 2008년 같은 시기에 비해 각각 1.8%p, 1.0%p 하락하였으며,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 계층의 고용률 하락이 두드러진다. 20대 고용률의 감소는 경기충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현상은 2005년 이후 관찰되는 모습이다. 특히 20~24세의 감소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진학으로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하거나 저학력 청년의 취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5 참조).

한편 2010년(1~11월) 30대 고용률은 72.0%로 경기침체기였던 2009년(1~11월)에 비해 0.7%p 상승했다. 그러나 경기침체기 이전인 2007년과 2008년 같은 시기에 비해 각각 0.8%p, 0.9%p 낮은 수치임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침체된 수준이다. 특히 30대 중 30~34세의 고용률은 2007년 수준을 회복한 반면, 핵심 연령계층이라 할 수 있는 35~39세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경기충격의 영향과 무관하게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20대 청년층의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상태가 회복되지 않는 30대 핵심연령층의 일자리 대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표 5〉 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2007	2008	2009	2007 (1~11월)	2008 (1~11월)	2009 (1~11월)	2010 (1~11월)
고용률	전 체	59.8	59.5	58.6	59.9	59.6	58.7	58.8
	15~19세	6.6	5.9	5.4	6.6	5.9	5.4	6.1
	20~29세	60.0	59.1	58.2	60.1	59.3	58.2	58.3
	20~24세	48.0	45.5	44.6	48.1	45.7	44.6	44.3
	25~29세	68.4	68.5	67.5	68.4	68.6	67.5	68.2
	30~39세	72.9	72.9	71.3	72.8	72.9	71.3	72.0
	30~34세	70.7	70.7	69.5	70.6	70.7	69.4	70.6
	35~39세	74.9	74.8	72.9	74.9	74.9	72.9	73.2
	40~49세	78.3	78.4	77.7	78.3	78.4	77.7	77.8
	50~59세	69.7	70.6	70.3	69.7	70.7	70.4	71.0
	60세 이상	38.1	37.2	36.7	38.4	37.5	37.1	36.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2. 상용직 중심의 일자리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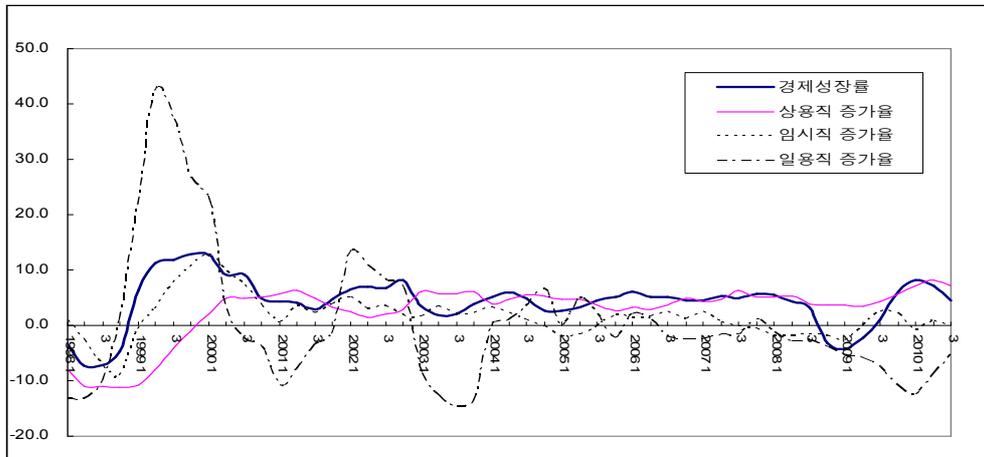
2010년에도 상용직 일자리 증가세는 지속되었으며, 그 증가폭은 확대되었다. 2010년(1~11월) 일자리 증가세는 임금근로자가 주도하였으며, 특히 상용직 일자리는 전년동기 대비 695천 개 증가하였다. 2010년(1~11월) 취업자증가율과 임금근로자증가율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3%, 3.1% 증가함으로써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1~11월)의 1.2%, 2.7%에 비해 증가세가 더 커졌으며, 이는 상용직 일자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용직 일자리 증가세는 2000년 이후 지속되어 온 추세로 경기침체기인 2009년에도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0년(1~11월)의 상용직 일자리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7.4%로 이는 2006~09년 평균증가율 4.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이 늘어난 상용직 일자리는 주로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인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직종별로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직에서의 상용직 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일자리 증가세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의 영향으로 임시직에서 상용직으로의 고용계약형태의 변화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상용직의 신규채용이 크게 증가했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경기변동과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증감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6>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비중 및 상용직 신규채용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07 1-11월	2008 1-11월	2009 1-11월	2010 1-11월
취업자	전 체	100.0 (420)	100.0 (236)	100.0 ( 247)	100.0 (423)	100.0 (250)	100.0 ( 236)	100.0 ( 509)
	상용직	54.0 (416)	55.6 (386)	57.1 ( 383)	53.9 (417)	55.5 (393)	57.0 ( 367)	59.4 ( 695)
	임시직	32.4 ( 29)	31.3 (-93)	31.0 ( 22)	32.4 ( 37)	31.3 (-93)	31.0 ( 25)	29.9 ( -30)
	일용직	13.6 (-26)	13.1 (-57)	11.9 (-158)	13.6 (-31)	13.1 (-50)	12.0 (-155)	10.7 (-156)
	고용주	9.8 (-70)	9.4 (-35)	9.2 ( -10)	9.8 (-70)	9.4 (-35)	9.2 ( -14)	8.8 ( -15)
	자영자	28.1 (-15)	27.4 (-44)	25.5 (-249)	28.2 (-14)	27.5 (-43)	25.6 (-245)	24.2 (-103)
	무급가족종사자	8.9 (-52)	8.6 (-13)	8.2 ( -60)	8.9 (-56)	8.7 (-13)	8.3 ( -54)	7.5 ( -81)
상용직 근속 연수	1년 미만	17.6	16.7	16.3	17.7	16.7	16.2	18.2
	1-2년	13.3	12.7	12.4	13.3	12.7	12.4	12.2
	2년 이상	69.1	70.6	71.3	69.0	70.6	71.4	69.6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고용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010년에도 여전히 상용직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많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1~11월) 현재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30천 개, 156천 개 감소하였다.

2009년 정부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주로 공공행정 부문의 임시직에 집중되어 2009년(1~11월) 임시직의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25천 개 증가하였으나 2010년(1~11월)에는 2009년 기저효과와 임시직 일자리 대책사업의 축소로 전년동기대비 30천 개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용직 일자리는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일용직 일자리는 경기변동에 순응적인 패턴을 보여 왔으나 2007년을 전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특히 2007년부터 실시되어온 방문취업제로 인한 중국동포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

〈표 7〉 일용직 일자리변동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07 1-11월		2008 1-11월		2009 1-11월	
전 체	2,178	(-26)	2,121	(-57)	1,963	(-158)	2,128	(-50)	1,973	(-155)	1,817	(-156)
농림어업	118	(-3)	113	(-5)	116	(3)	115	(-5)	120	(5)	112	(-8)
광업	1	(1)	1	(-0)	1	(-0)	1	(-0)	1	(-0)	0	(-0)
제조업	264	(-13)	255	(-9)	222	(-33)	255	(-7)	223	(-32)	195	(-28)
전기가공업	1	(0)	1	(-0)	0	(-0)	1	(-0)	0	(-0)	1	(1)
하수폐기물 등	1	(-1)	1	(0)	1	(0)	1	(0)	2	(0)	1	(-0)
건설업	721	(16)	678	(-43)	638	(-40)	680	(-44)	643	(-38)	610	(-33)
도소매업	247	(4)	249	(2)	238	(-10)	249	(3)	237	(-12)	230	(-6)
운수업	53	(0)	56	(3)	45	(-11)	57	(4)	46	(-11)	35	(-11)
숙박음식점업	333	(-28)	342	(9)	324	(-18)	341	(9)	324	(-16)	284	(-41)
출판영상 등	13	(-6)	16	(3)	13	(-3)	17	(3)	13	(-4)	13	(0)
금융보험업	6	(0)	6	(1)	4	(-2)	6	(1)	4	(-2)	5	(1)
부동산임대업	13	(-3)	8	(-5)	14	(6)	8	(-5)	14	(6)	10	(-4)
전문과학 등	16	(-1)	11	(-4)	10	(-1)	11	(-5)	10	(-1)	11	(1)
사업시설관리 등	125	(19)	119	(-6)	76	(-43)	120	(-5)	75	(-45)	82	(7)
공공행정	40	(-13)	41	(1)	32	(-9)	42	(1)	34	(-8)	21	(-13)
교육서비스업	21	(2)	23	(2)	21	(-2)	22	(2)	21	(-1)	15	(-6)
보건업 등	15	(-2)	14	(-1)	22	(8)	13	(-1)	22	(9)	23	(1)
예술스포츠 등	47	(-8)	51	(4)	44	(-7)	51	(5)	44	(-7)	40	(-4)
기타개인서비스업	69	(-3)	76	(7)	80	(3)	76	(7)	79	(3)	71	(-8)
가구내고용활동	74	(13)	59	(-15)	61	(2)	60	(-14)	61	(1)	57	(-5)
국제외국기관	-	(-)	0	(0)	-	(-0)	0	(0)	-	(-0)	-	(-)
연령												
20세 미만	110	(7)	98	(-11)	85	(-14)	99	(-10)	83	(-16)	95	(12)
20대	278	(-8)	268	(-10)	251	(-17)	270	(-5)	251	(-19)	220	(-31)
30대	371	(-53)	348	(-23)	287	(-61)	350	(-22)	289	(-61)	233	(-56)
40대	627	(-8)	609	(-18)	576	(-32)	609	(-18)	580	(-29)	498	(-83)
50대	472	(31)	491	(18)	473	(-17)	491	(19)	476	(-16)	480	(5)
60세 이상	320	(5)	307	(-14)	291	(-16)	308	(-14)	294	(-14)	291	(-2)
학력												
초졸 이하	966	(-19)	928	(-39)	824	(-103)	931	(-37)	831	(-100)	756	(-75)
중졸	1,056	(-9)	1,035	(-22)	980	(-55)	1,039	(-17)	983	(-56)	908	(-75)
고졸	80	(-0)	76	(-4)	84	(8)	76	(-3)	83	(8)	82	(-2)
초대졸	73	(2)	81	(8)	73	(-8)	81	(8)	74	(-7)	68	(-5)
대졸 이상	2	(1)	2	(0)	3	(1)	2	(0)	3	(1)	4	(1)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고용증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인다. 동포들의 경우 주로 건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비중이 높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경제활동인구에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근 일용직 일자리의 감소는 내국인 일용직 일자리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3. 제조업의 고용창출능력 증가

2010년 일자리 증가세는 주로 제조업(183천 개), 보건업(153천 개), 사업시설관리업(77천 개)에서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의 일자리는 2010년(1~11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183천 개가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인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도 전년동기대비 77천 개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일자리 특징 중 가장 주목할 것은 제조업 부문에서의 일자리가 지속적인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2010년 들어 수출호조에 힘입어 제조업의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9.9%, 평균기동률지수는 82.6%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하였다. 제조업의 성장이 고용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2010년(1~11월)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는 전체 일자리 증가의 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3/4분기 제조업 고용탄력성은 0.700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제조업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상용직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의 일자리는 2010년 8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300천 개 증가한 이후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일자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 9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0년 11월 현재 46천 개 증가하였다.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전년의 일자리 감소폭이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제조업내 생산 및 고용비중이 높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등에서의 생산 및 고용성과에 기인한다(부표 1 참조).

그러나 2010년 일자리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일자리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밀돌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각각 17천 개, 49천 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2010년의 고용성과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 의존하여 타 산업에서의 고용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산업별 고용창출전략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표 8> 산업별 일자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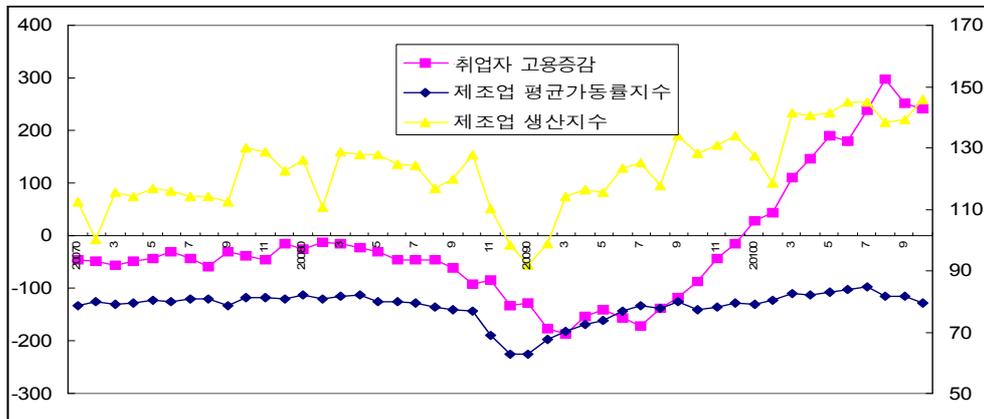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08 1-11월	2009 1-11월	2010 1-11월
전 체	23,433 (282)	23,577 (145)	23,506 (-72)	23,608 (159)	23,531 (-77)	23,842 (311)
공공	797 (-5)	840 (43)	1,032 (191)	843 (47)	1,039 (195)	963 (-76)
민간	22,636 (287)	22,737 (101)	22,474 (-263)	22,764 (112)	22,492 (-272)	22,879 (387)
농림어업	1,723 (-58)	1,686 (-37)	1,648 (-38)	1,712 (-41)	1,686 (-26)	1,597 (-89)
광업	16 (1)	23 (6)	23 (-0)	23 (7)	23 (-0)	20 (-2)
전기가스 등	86 (10)	90 (4)	96 (5)	90 (5)	96 (6)	79 (-18)
건설업	1,849 (16)	1,812 (-37)	1,720 (-91)	1,816 (-36)	1,722 (-95)	1,755 (34)
제조업	4,014 (-42)	3,963 (-52)	3,836 (-126)	3,969 (-44)	3,833 (-136)	4,016 (183)
서비스업	14,948 (360)	15,164 (216)	15,151 (-13)	15,153 (222)	15,132 (-21)	15,412 (280)
(서비스+공공포함)	15,745 (356)	16,004 (260)	16,183 (179)	15,997 (268)	16,171 (174)	16,375 (204)
도소매업	3,673 (-38)	3,631 (-41)	3,600 (-32)	3,632 (-40)	3,596 (-36)	3,579 (-17)
운수업	1,247 (54)	1,248 (1)	1,247 (-1)	1,250 (5)	1,245 (-5)	1,280 (35)
숙박 및 음식점업	2,049 (-0)	2,044 (-5)	1,936 (-107)	2,041 (-5)	1,937 (-104)	1,888 (-49)
출판, 영상, 방송 등	634 (-17)	627 (-7)	652 (25)	627 (-8)	651 (23)	665 (14)
금융 및 보험업	806 (20)	821 (15)	766 (-55)	822 (17)	762 (-60)	807 (46)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5 (6)	489 (-17)	500 (12)	487 (-17)	499 (12)	518 (18)
전문, 과학 등	702 (21)	756 (55)	844 (87)	752 (50)	841 (89)	879 (38)
사업시설업	954 (135)	974 (20)	944 (-29)	973 (22)	946 (-27)	1,023 (77)
교육서비스업	1,740 (38)	1,784 (44)	1,831 (48)	1,784 (44)	1,830 (46)	1,806 (-24)
보건업	740 (59)	842 (103)	998 (156)	837 (100)	994 (156)	1,147 (153)
예술스포츠 등	371 (-8)	419 (48)	390 (-28)	416 (46)	391 (-24)	378 (-13)
협회단체	1,291 (72)	1,297 (6)	1,211 (-86)	1,299 (12)	1,209 (-90)	1,216 (7)
가구내고용활동	161 (23)	150 (-11)	147 (-3)	151 (-10)	147 (-4)	150 (3)
국제 및 외국기관	15 (-4)	16 (1)	12 (-4)	17 (1)	13 (-4)	13 (0)
하수폐기물 등	61 (-0)	66 (5)	72 (6)	66 (5)	72 (6)	64 (-8)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고용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6] 제조업의 취업자 및 평균가동률지수, 생산지수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광업, 제조업동향조사」.

<표 9>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특징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08 1-11월	2009 1-11월	2010 1-11월
제조업 전체		4,014 (-42)	3,963 (-52)	3,836 (-126)	3,969 (-44)	3,833 (-136)	4,016 (183)
규모	300인 미만	3,291 (-5)	3,283 (-8)	3,217 (-67)	3,286 (-4)	3,210 (-76)	3,413 (203)
	상용직	1,681 (91)	1,736 (55)	1,795 (59)	1,736 (55)	1,792 (56)	1,986 (194)
	300인 이상	723 (-37)	679 (-44)	620 (-60)	683 (-40)	623 (-60)	603 (-20)
직종	관리자	165 (9)	129 (-35)	115 (-15)	131 (-34)	114 (-17)	113 (-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41 (22)	437 (-3)	400 (-37)	441 (1)	401 (-40)	427 (27)
	사무 종사자	665 (-21)	662 (-3)	689 (26)	662 (-3)	688 (25)	735 (48)
	서비스 종사자	19 (-0)	19 (-1)	16 (-2)	19 (-1)	16 (-2)	15 (-1)
	판매 종사자	98 (7)	81 (-17)	80 (-0)	82 (-17)	79 (-3)	88 (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1 (1)
	기능원 및 관련 등	808 (-33)	859 (51)	778 (-81)	859 (51)	779 (-79)	765 (-15)
	장치, 기계조작 등	1,277 (-39)	1,231 (-46)	1,244 (13)	1,229 (-47)	1,243 (13)	1,316 (73)
	단순노무 종사자	541 (13)	544 (3)	514 (-30)	547 (6)	513 (-34)	556 (43)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고용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4.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러져

2010년(1~11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러져 금융위기 이전 수준(2007년 345천 개)을 이미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1~11월) 현재 중소기업의 상용직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700천 개 증가하여 중소기업에서의 상용직 일자리 증가세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10년(1~11월) 현재 대기업에서의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43천 개 사라졌으며, 이 중 임시직과 상용직 일자리가 각각 34천 개, 5천 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세는 2010년 11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23천 개 증가함으로써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일자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고용사정이 저조했던 2009년에는 증가한 반면,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기저효과와 신규채용규모의 감소 그리고 이직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의 사업체규모별·근속년수별 일자리 추이를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1년 미만 근속자가 전년동기대비 12천 명 감소하였으며, 1년 이상 근속자도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사업체규모별 일자리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08 1-11월		2009 1-11월		2010 1-11월	
	300인 미만	21,594	(337)	21,711	( 117)	21,522	(-189)	21,741	( 129)	21,544	(-197)	21,898
상용직	6,937	(440)	7,304	( 366)	7,601	( 298)	7,298	( 371)	7,578	( 279)	8,278	( 700)
임시직	5,041	( 54)	4,938	(-103)	4,926	( -12)	4,938	(-102)	4,927	( -11)	4,931	(  4)
일용직	2,155	(-19)	2,099	( -56)	1,943	(-156)	2,107	( -49)	1,953	(-153)	1,801	(-152)
고용주	1,562	(-70)	1,527	( -35)	1,517	( -10)	1,528	( -35)	1,515	( -14)	1,500	( -15)
자영자	4,487	(-15)	4,443	( -44)	4,194	(-249)	4,459	( -42)	4,214	(-245)	4,111	(-103)
무급가족종사자	1,412	(-53)	1,400	( -12)	1,341	( -59)	1,411	( -13)	1,358	( -54)	1,277	( -81)
300인 이상	1,839	(-55)	1,866	(  28)	1,983	( 117)	1,866	(  29)	1,987	( 120)	1,944	( -43)
상용직	1,683	(-24)	1,703	(  20)	1,788	(  85)	1,703	(  22)	1,790	(  87)	1,785	(  -5)
임시직	132	(-24)	141	(  10)	175	(  34)	141	(   9)	177	(  36)	143	( -34)
일용직	23	( -7)	21	( -1)	20	( -2)	21	( -1)	20	( -1)	16	( -4)
자영자	0	( -0)	-	( -0)	-	( -)	-	( -0)	-	( -)	-	( -)
무급가족종사자	1	(  0)	1	( -1)	0	( -1)	1	( -1)	0	( -1)	-	( -0)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고용증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1> 사업체규모별 · 근속년수별 일자리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08 1-11월		2009 1-11월		2010 1-11월	
	300인 미만	14,133	(475)	14,341	( 208)	14,470	(130)	14,343	( 220)	14,458	(115)	15,010
1년 미만	5,938	( 43)	5,792	(-146)	5,835	( 44)	5,799	(-150)	5,829	( 31)	6,031	(201)
1-2년	2,142	(164)	2,112	( -29)	2,043	(-69)	2,115	( -24)	2,044	(-71)	2,053	(  9)
2년 이상	6,054	(268)	6,437	( 383)	6,592	(155)	6,429	( 394)	6,584	(155)	6,926	(342)
300인 이상	1,837	(-55)	1,866	(  29)	1,983	(118)	1,865	(  30)	1,987	(121)	1,944	(-43)
1년 미만	240	(-29)	250	(  10)	278	( 27)	249	(  8)	278	( 29)	266	(-12)
1-2년	158	(-19)	151	( -7)	162	( 11)	152	( -6)	163	( 11)	148	(-15)
2년 이상	1,438	( -7)	1,464	(  26)	1,543	( 79)	1,464	(  28)	1,546	( 82)	1,530	(-16)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고용증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III. 2011년 고용전망과 정책과제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사정은 개선되고 있으나 성장률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1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성장률에 따른 고용창출력을 나타내는 고용탄력성 추이를 보면 2001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 고용탄력성은 0.3%대 수준이었으나 2006년 이후 0.2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10년 고용탄력성은 0.23(잠정치)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최근 들어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9년의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인한 고용감소규모의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 외에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의 저하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0~08년 기준 한국의 고용탄력성은 비교대상 OECD 29개 국가 중 2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같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상위 국가군에 속해 있어 경제성장의 고용창출력 제고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 12〉 최근 경제성장률, 취업자 증가율 및 고용탄력성

(단위: %)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가율	고용탄력성 (당해연도 기준)	고용탄력성 (2000년 기준 기간평균)
2001	4.0	2.0	0.50	0.50
2002	7.2	2.8	0.39	0.43
2003	2.8	-0.1	-0.04	0.33
2004	4.6	1.9	0.41	0.35
2005	4.0	1.3	0.33	0.35
2006	5.2	1.3	0.25	0.33
2007	5.1	1.2	0.24	0.32
2008	2.3	0.6	0.26	0.31
2009	0.2	-0.3	-1.50	0.30
2010(p)	6.1	1.3	0.21	0.29

주: 고용탄력성=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

2011년 경제성장률은 전년인 2010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겠지만 설비투자 등 내수 관련 지표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민간 소비는 가계의 구매력 증대, 소비심리 호조 등으로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와 수출도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 및 양호한 IT업황 등에 힘입어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한편 건설투자는 전년인 2010년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표 13> 경제성장 전망

(단위: %)

	2010			2011p(한국은행)			2011p (기재부)	2011p(KDI)		
	상반	하반p	연간p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성장률	7.6	4.6	6.1	3.8	5.0	4.5	5.0	4.0	4.3	4.2
민간소비	5.0	3.4	4.2	3.8	4.5	4.1	4.3	4.3	3.9	4.1
건설투자	-0.7	-2.1	-1.5	0.1	2.5	1.4	2.1	2.6	4.1	3.4
설비투자	30.1	19.5	24.3	9.5	3.9	6.5	7.0	11.0	6.3	8.5
상품수출	17.9	14.5	16.1	11.5	8.0	9.6	10.2	12.3	12.7	12.5
상품수입	21.9	18.9	20.3	12.3	8.2	10.1	14.8	14.7	14.5	14.6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2010. 12), 「2011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2010. 12), 「2011년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2010. 11), 「KDI 경제전망」.

2011년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의 감소폭보다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보여 경기침체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전망이다. 2011년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보다 낮은 4.5~5.0%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연평균 28만~3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되고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취업자수 증가는 이보다 더 낮은 25만 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4> 2011년 고용전망

(단위: 천 명, %)

	2010			2011p(경제성장률 4.5% 가정)			2011p(경제성장률 5.0% 가정)		
	연간p	상반기	하반기p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경제성장률	6.1	7.6	4.6	4.5	3.8	5.0	5.0	4.4	5.5
생산가능인구	40,591	40,476	40,705	41,078	40,962	41,193	41,078	40,962	41,193
경제활동인구	24,745	24,602	24,880	25,006	24,809	25,204	25,010	24,813	25,208
경제활동참가율	61.0	60.8	61.1	60.9	60.6	61.2	60.9	60.6	61.2
취업자	23,817	23,603	24,030	24,097	23,853	24,341	24,116	23,873	24,360
(증가율)	1.3	1.2	1.4	1.2	1.1	1.3	1.3	1.1	1.4
(증감수)	311	283	339	280	250	311	300	269	330
실업자수	928	999	849	909	955	863	894	940	848
실업률	3.8	4.1	3.4	3.6	3.9	3.4	3.6	3.8	3.4
고용률	58.7	58.3	59.0	58.7	58.2	59.1	58.7	58.3	59.1

주: p는 전망치임.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의 확대 및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문제가 2011년도 고용정책의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1년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문의 노동수요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정립을 위한 고용전략수립 및 정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부문별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고용영향 평가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의 융복합화와 일자리 창출방향 정립을 위한 고용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유입방안이 촉진되어야 하며, 빈일자리 채우기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목표집단의 유인 촉진(일용직, 30대 연령층) 및 정착도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피용자 비율 제고를 위해 자영업 종사자(특히 자영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유입 촉진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둘째, 재정을 통한 일자리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대상의 소득지원형 일자리의 유지 및 목표집단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 진입이 일자리 정착(안정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지속성 및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빈일자리 대책과 인턴제(청년인턴제와 전문인턴제)의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의 연계를 위해 30대 장기실업자나 자영자, 일용직 종사자의 유입촉진 정책과 고용(소득)안정정책을 위한 정책수단의 결합 및 연계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목표 집단별 정책수단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0대 청년층뿐만 아니라 30대의 고용률 관리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30대 고용률 저하문제는 20대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이연된 측면도 있지만, 30대 고용사정 악화는 고용취약성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상 상위계층으로의 노동이동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청년층 고용대책의 대상을 30대로 확대하여 청년층 취업기회 참여가 30대의 고용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총량적인 고용률 제고 목표의 기초하에 부문별 고용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30대 고용률 저하 방지를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적합한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용직 일자리 대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용직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비경활로 유입됨으로써 빈곤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용직 종사자의 고용 및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력 정책의 내국인 보완성 원칙 기초 정립 및 이를 위한 정책의 재정립이 요청된다. 끝으로 자영자의 구조조정 지속 및 자영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방안의 마련 등 자영자 대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KL**

〈부표 1〉 제조업 중분류별 고용 및 생산 변동 추이

(단위: %, 천 명)

	2004. 1-10		2009. 1-10		2010. 1-10		2004-2008		2009. 1-10	2010. 1-10
	취업 자증 가율	생산 증가 율	취업자 증가율	생산 증가 율	취업자 증가율	생산 증가 율	취업 자증 가율	생산 증가 율	고용증감	
제조업	2.3	11.6	-3.7	-5.6	4.5	17.9	-2.0	6.3	-146	173
경공업	-1.7	-2.1	-9.8	-8.9	4.0	2.1	-5.5	-0.2	-113	42
경공업(기타포함)	-1.6	-2.5	-9.3	-9.1	3.7	2.8	-6.0	-0.6	-127	46
중공업	3.2	7.0	-3.7	-0.1	3.3	14.1	1.0	5.0	-57	49
화학공업	7.2	4.1	10.7	-11.1	7.4	6.1	-1.4	3.6	39	30
전자산업	8.0	10.5	-0.1	-0.9	6.5	19.7	0.4	7.3	-1	48
식음료	2.2	1.9	-37.8	-2.9	8.9	3.4	0.2	0.3	-210	31
담배제조업	2.1	10.1	-100.0	-1.6	-100.0	-8.5	-51.7	-0.7	-889	-0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2.7	-8.8	-81.4	-8.9	1.4	10.8	-9.5	-5.5	-735	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6.9	0.8	-66.9	-10.0	3.3	0.5	-5.8	6.5	-549	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3.3	-14.5	-89.7	-14.8	5.5	-4.2	-4.9	-2.8	-498	3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5.2	-3.1	-91.9	-15.7	-4.9	1.2	-5.0	-1.2	-400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3.5	3.0	-80.8	-6.1	6.3	6.0	-8.6	0.9	-282	4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4.9	-1.7	-70.8	-12.1	-6.1	11.0	-11.2	1.2	-225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5.6	3.0	-99.7	-0.3	-100.0	1.0	-58.9	1.6	-338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0.5	5.7	-35.6	1.6	5.2	5.7	-2.2	6.4	-113	1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6.9	3.7	-40.3	-12.2	10.1	11.9	0.5	2.7	-132	2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4.9	-0.9	-65.6	-4.9	2.7	4.7	-6.0	1.5	-202	3
1차금속제조업	4.9	5.5	-62.7	-14.8	3.7	21.4	2.2	2.6	-198	4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3.2	3.8	-1.5	-12.5	5.8	7.7	4.8	3.9	-5	1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8.6	30.7	39.5	-0.1	8.3	27.1	-2.3	15.6	131	3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4.9	2.0	-75.0	-2.5	11.0	14.8	-0.7	2.8	-252	9
전기장비제조업	7.6	5.9	-45.2	-0.2	0.4	14.1	10.2	3.6	-158	1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7.9	13.5	1.9	-16.7	9.5	45.0	-7.7	5.7	6	33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7	10.8	2.6	-13.8	6.1	29.6	1.5	4.7	9	22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2	12.4	-45.7	15.7	-14.7	-9.3	18.0	11.3	-180	-31
기타	-1.0	-5.3	-51.0	-11.7	2.1	9.1	-8.6	-4.2	-203	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광업, 제조업동향조사」.